



② 위대한 민족유산 '한글' 국제화 선도



조선대가 베트남 빈즈엉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교육 한류 이끄는 국제화 선도대학

지난 2008년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한국어학당을 개설한 이래 꾸준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문화 교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조선대가 현재에도 케냐 나이로비와 베트남 빈즈엉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교육 한류를 이끄는 국제화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008년 국내 대학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한국어학당을 개설해 7년 동안 운영했으며, 중국 절강성 과학기술대를 비롯해 하남공업대학교, 온주 월수고등학교에도 한국어학당을 개설 및 운영했다.

◇케냐타대학 세종학당 개소

조선대는 지난 2015년 1월 조선대-

호찌민·케냐 등 세종학당 개소

해외 한국어 교육 봉사단 운영

한국 긍정적 이미지 제공 눈길

케냐타대학 나이로비 세종학당을 개소했다. 2013년 7월 케냐타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2014년 4월 한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국립대학에 유학센터를 개설했다. 또 2016년 1월 동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세종 학당을 개설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국립 케냐타대학은 1985년 케냐의 국부(국부)로 추앙받는 조모 케냐타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설립된 케냐 제2의 대학으로 성장한 명문대학이다.

◇베트남 빈즈엉 세종학당 개소

2016년 7월에 베트남의 경제중심 도시인 호찌민 시 북부에 있는 빈즈엉에 세종학당을 개소 및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빈즈엉은 인근 동나이와 함께 베트남 최대 공업단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수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곳이다. 빈즈엉 대학은 한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한국어교육센터를 개설하고 운영해 2016년에 세종학당을 개소

했다.

조선대가 세종학당을 개소하면서 빈즈엉 시 뿐 만 아니라, 인접 산업지역인 동나이 등까지 확대해 취업대상자 및 한국계기업 직원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조선대의 적극적인 노력은 베트남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중국·케냐·몽골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교류협력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해 한국어 교

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세계적 세종학당 성공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해외 교육 봉사활동 전개

조선대는 또 교육 한류를 선도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한국어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 '국제 한국어교육·문화 교류 봉사단' 50여명을 구성해 베트남과 몽골로 파견했다. 봉사단은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 활동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참여 학생들은 타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강동완 총장은 "국제 교류활동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화다양성 및 글로벌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앞으로 '국제 한국어 교육·문화 교류 봉사단' 활동을 확대시켜 교육 한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pes@kdaily.com

홈 > 뉴스 > 대학뉴스 > 대학일반

## 조선대, "케냐·베트남에 이어 中서도 한국어 알린다"

중국 원저우 세종학당 신규 지정

2018년 05월 23일 (수) 16:56:14

임승미 기자 | sm@dhnews.co.kr



[대학저널 임승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는 2018년 세종학당에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원) '중국 원저우 세종학당'(절강동방직업기술대학)이 신규로 지정됐다. 조선대는 이로써 케냐, 베트남에 이어 중국에서도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한국과 한국문화 보급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이번 공모에 신청한 31개국 56개 기관 중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최종심사 등을 거쳐 16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세종학당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 정부로부터 일부 운영 경비와 교원 파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선대 중국 원저우 세종학당은 절강동방직업기술대학에 들어서게 된다. 양교는 2015년 3월에 MOU를 체결했다. 같은 해 9월에 '한국어 학당 공동설립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며 한국어학당 공익반제 1기생을 모집하여 운영했다. 이후 세종학당을 유치하기 위한 절강동방직업기술대학에의 시설투자 등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강동원 조선대 총장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중국, 케냐, 몽골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축적한 교류협력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세계적 세종학당 성공 모델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번에 중국 원저우 세종학당이 새로 지정됨으로써 조선대가 국제화 선도대학으로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꾀하는 한편 교육한류를 전파하는 청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